



임금 차별과 고용 불안에 맞선 학교비정규직 파업·투쟁에 지지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호봉제 도입,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11월 14~15일 1차 파업에 이어 11월 29일에는 부산, 울산, 전북 등에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우파와 지배자들은 “급식 차질” 운운하며 비난하고 나섰다. 충북에서는 일부 학부모들이 교육청 앞에서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해고하라”고 기자회견을 여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이윤 논리와 차별로 학교를 망가뜨려 온 정부와 사용자들이야말로 비난 받아야 한다. 학교에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아이들에게 “공부 못하면 비정규직 된다”며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경쟁과 입시교육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저들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충북의 한 학교 학생들은 파업 노동자들이 학교 앞을 행진하자 손을 흔들고 박수 치며 응원

을 보냈다. 지난해 11월 9일 학교비정규직 파업은 전국을 뒤흔들며,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 등의 문제를 알리고 많은 관심과 지지를 모으는 계기가 됐다. 박근혜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제 말을 바꾸며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정부는 1년 이상 근무한 학교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다. 임금·수당·상여금 등 모든 조건이 정규직에 훨씬 못 미치는데다 고용 불안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사용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려고 노동자들을 미리 해고하는 것을 막을 방안도 없다. 이미 곳곳에서 총액인건비제를 핑계 삼아 해고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전문상담사 등 4만여 명은 아예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심각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시간제 계약으로 전환하라고 돌봄 교사 등 전일제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호봉제

처우 개선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호봉제를 요구해 왔다.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같은 임금을 주는 현행 임금 체계야말로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임금 차별을 구조화하는 주범이기 때문이

다. 학교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호봉제에 따라 경력과 함께 임금이 올라가는데, 비정규직만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반면 정부는 내년에 장기근속가산금(수당)을 고작 1만 원 인상하겠다는 안을 내놔다. 급식비,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에서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라는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식비는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 된다.

호봉제 도입과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학교비정규직의 투쟁은 완전히 정당하다.

» 뒷면으로 이어짐

★ 이 리플릿은 학교비정규직 투쟁 소식을 알리고 지지를 넓히기 위해, 11월 25일부터 서울·경기·부산·울산·인천·전북 등 전국 주요 도심, 대학, 초·중고, 작업장에서 반포되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에 연대하는 전교조 교사들



11월 15일 충북지역 학교비정규직 파업 집회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정규직 교사들의 연대도 시작되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학교가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사용하면서도 처우는 가장 열악하고, 차별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파업을 앞둔 학교들에서 여러 교사들이 학비 파업의 정당성 알리기, 1인 시위, 지지 현수막 걸기 등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충북 제천여고에서 일하는 한영숙 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교직원들에게 학교비정규직의 현실을 담은 동영상과 파업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걸 보고는 많은 교직원들이 ‘정말 비정규직이 1백만 원 받고 일하는 거냐, 자세하게 이야기해 달라’며 관심을 보였어요.

“충북의 일부 학부모들이 파업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학부모들

과 학생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도 도시락을 싸 갔는데 조리원 분들이 파업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더군요. 자신이 도시락을 싸 가는 것이 그 분들의 파업을 응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가 추구하는 참된 교육, 바람직한 학교를 위해서라도 전교조가 앞장서 비정규직과 연대해야 합니다.”

참교육

경기도 어람중학교에서 일하는 김현옥 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료 교사들에게 학교비정규직 파업 소식을 알리고 응원 메시지를 받아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같은 학교 급식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응해 줬는데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급식 선생님들의 파업을 응원하겠다고 말

했습니다. 비정규직 교사들의 차별 문제에 대해 정규직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전교조의 연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북돋고 있다. 11월 29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이복자 울산지부장은 연대를 호소했다.

“파업을 앞두고 학교 앞 1인 시위, 파업을 알리는 현수막 걸기 등을 하려고 전교조에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전교조에서 적극 지지한다며 함께하겠다고 하시더군요.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이 연대해 주니 정말 힘이 납니다.”

정부는 학교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해 양쪽을 모두 약화시키려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할 때 우리의 힘은 강해지고 양쪽을 모두 공격하는 정부에 맞서 더 잘 싸울 수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 투쟁에 적극 연대하는 게 중요한 또 다른 이유다.

» 앞면에서 이어짐

경기도의 노동자들이 이를 동안 파업하자 경기도교육청은 미적대던 재량휴업일 유급 보장,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적용 등을 약속했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때 저들을 물러서게 할 수 있다.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전국학비노조 부산지부 서희자 부지부장은 이렇게 투지를 다졌다. “우리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늘 돈이 없다고 하지만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어디가 우선인가 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소리 없이 학교에서 사라지는 길뿐이며, 싸울 때만 내 권리를 찾아올 수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자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연대도 확대되고 있다. 전교조는 학생과 학부모 들에게 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리는 등 연대 활동에 나서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11월 말 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예산과 고용·처우 보장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직 법안이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학교비정규직의 투쟁은 온갖 차별에 신음해 온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다. 올해도 학교비정규직이 전진한다면 건설·철도·삼성전자서비스 등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는 다른 많은 노동자들에게도 자신감을 줄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노동자연대다함께의 선명 진보 신문

국제주의·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노동자 연대

레프트21을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11월~12월 예고되고 있는
주요 투쟁의 소식과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지지하라

학교비정규직 투쟁과 정규직 교사들의 연대

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내몰린 건설 노동자들

정부의 공공기관 노동자 공격과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http://www.left21.com>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left21@left21.com | 웹사이트에서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